

제7회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탈도시 주거의 일상성

현장 스케치

제7회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탈도시 주거의 일상성'을 주제로 서울시 은평구 기자촌 일대에 공동주택 계획을 제시하였다. 1960년대 말 기자촌을 위해 조성된 기자촌은 맑은 자연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사람 동네를 찾는 도시민들을 받아들이기 알맞은 장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 대지에 새로이 40세대 내외, 단위 세대 면적 1백16㎡(약 35평) 이내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한된 상태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였다.

참가를 신청한 총 6백78명 중 2001년 1월 17일부터 3일간 총 1백49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작품 접수는 지방 학생을 고려하여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이루어 졌는데, 서울에서 86점, 부산 34

점, 우편 접수 29점으로 집계되었다. 마감 시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적용으로 많은 작품이 접수 창구 밖에서 되돌아가 최종 접수된 작품의 수는 작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1차 심사는 심사위원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서혜림(주)건축사사무소 힘마), 코디네이터 조용수(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서현(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7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회 심사는 접수번호 순으로 패널을 펼쳐놓고 심사위원이 각각 미흡한 작품에 스티커를 붙

여 먼저 탈락분을 선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1회 심사결과 두 심사위원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66개 작품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시에 긍정된 33개 작품은 3회 심사 대상작으로 넘겨졌다. 2회 심사에서는 한 개의 스티커가 붙은 50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이해와 접근에 심도가 있는 작품 12개가 재선정되었다. 이 12개 작품과 1회 심사에서 선정된 33개 작품 등 총 45개 작품을 대상으로 마지막 3회 심사를 통해 당선 30개 작품이 어렵사리 선정되고, 30개 작품의 설계설명서가 심사위원에게 주어졌다.

당선 1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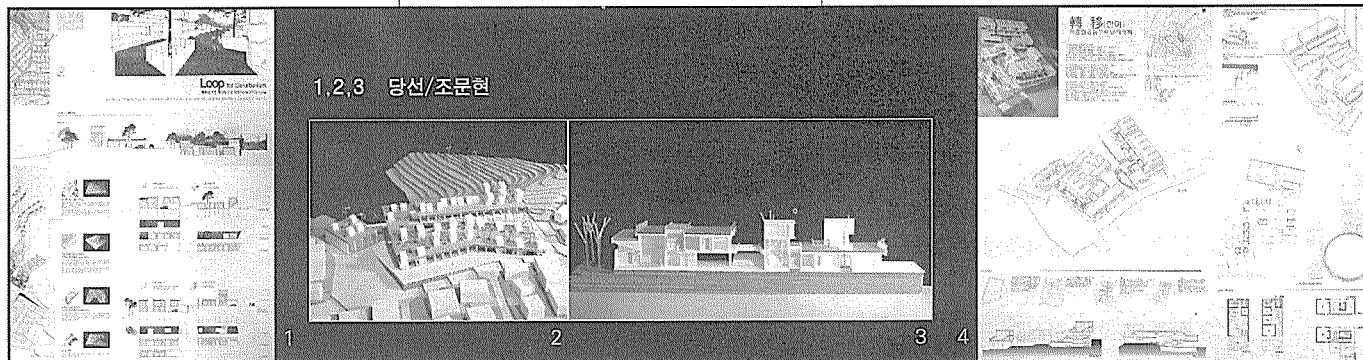
강혁진(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환경디자인연구소) Two IN One
 김광식(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轉移(전이)
 김세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일상: 비밀상적 기억을 통하여
 김필수(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Read between Lines
 박성식(서울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탈도시 주거의 유사-일상성(Pseudo-reality)
 박종환((주)아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Sympathy
 양철권(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흙이 있는 마을
 조문현(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Loop for De-urbanism
 차현호(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Dynamic Equilibrium
 최순용(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Open Residences

가작 10선

권순엽(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
 김민수(동서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설계학과 3학년) 욕망의 연속선상에서
 김찬기(대성건축사사무소) S-it-East
 류창현(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歸家(귀가)
 송성욱(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Boundary Story for Reality
 유명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탈도시- 이중적 요구
 이은정(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樂園(낙원) 2001 Nakwon
 정재성(동서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설계학과 3학년) Natural Modernism
 천성우(경기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Build up the Village
 황영호(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토목학과) 비밀상적 이탈과 일상으로의 치환

입선 10선

김승수(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Mixing-neighborhood, Nature and Housing in 125m
 김용하(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전공 2학년) Return... the Lost
 김준택(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Netscape.gija-chon.seoul
 김형두(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일상, 만남, 관계
 이정현(대전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in Blur, out Blur, line Blur
 이현아(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Optical Connection
 임호석(동의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Ways of Seeing
 장지훈(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De-regulated Reality
 최태영(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전공 2학년) 삶은 어딘가에...
 한상국(중앙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The Garden City



1,2,3 당선/조문현

1

2

3

4

2월 4일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진 2차 공개 심사에는 상기된 얼굴의 1차 당선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 작가의 발표,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2차 심사는 패널과 설계설명서에서 읽을 수 없는 작품의 깊이를 발표자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이지만 논의할 만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그 아쉬운 점과 훌륭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비평하기도 하여 참가자들에게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발표가 끝나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은 또 하나의 논쟁이었다. 8개 작품은 당선으로 쉽게 동의되었으나 2개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해당 패널과 모형들을 펼쳐 놓고 심사장은 담배연기로 가득 찼다. 당선 리스트가 두어 번 바뀌는 진통을 겪어 한 시간 여여 걸쳐 최종 당선 10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검토된 셈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당히 넘어가는 심사가 아닌 책임감 있는 심사를 한 심사위원 두 분에게서 참건축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건축을 이끌 참가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밝힌다.

공모전 전제로서의 탈도시는 이번으로 끝을 맺고 제8회 아이디어 공모전은 조용수(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에 이어 새로이 코디네이터를 맡은 서현(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와 함께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심사평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대표

이번 '탈도시 주거의 일상성'을 본 공모전의 주제로 설정한 후 지난 여름 일행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하였다. 마을 내의 여러 후보지 중에서도 최종 선정된 본 대지는 자연과 도시, 평지와 경사지, 녹지와 대지, 공용마당과 사적 대지, 기존과 신입, 단독형식과 집합형식, 산세와 좌향 등이 서로 만나면서 충돌, 융화, 교차하는 지점으로, 탈도시이면서도 일상적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놓임으로써, 보다 많은 갈등 구조를 지니는 곳으로 여겨져 어렵지 않게 대상 대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까다로운 위치에도 주제로서 제시되는 개념들—탈도시, 일상성, 리얼리티—조차도 또한 호락호락한 것들이 아니어서 일면 부담스럽기도 하였으나 또한 응모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 열려진 상황이 주어짐 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출품된 작품들의 경향들은 공간의 전개방법과 개념의 접근방법으로 구분 지어 살펴 볼 수 있겠다. 첫째, 공간 전개의 구성방식에서는 두 부류로 구분된다. 비교적 자체원결적인 유닛 셀(unit cell)의 반복적인 조합중식으로 대지를 점유하면서 보다 강한 계수탈트를 형성하면서 다분히 주변에 대한 배려가 약화되는 유형과, 임의적 혹은 구성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주변과 자체 내의 전략적인 여러 요구사항들을 두루 수용하면서 펼쳐지는 유형으로 대별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작품과 주제설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 태도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제를 언어적 개념정립에서 시작하면서 나름의 논리로 설정한 후, 여기서 그 모든 전개의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방식. 그리고 둘째, 주제의 철저한 수용보다는 주변으로부터 요구되는 문제들을 보다 많이 해결하려는 데에 역점을 두는 접근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져 나타났다. 응모된 작품이 이 중 어떤 유형에 속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심사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심사기준으로는 총체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유무, 설정된 주제의 설득력과 작품과의 관련도, 창의적 발상이나 주제해석의 참신성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런 것들을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나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가를 선정기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물론 이런 류의 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그 외의 일반적 중요한 덕목들—두 힘이 만나는 경계의 해석, 단지 내 또는 이웃간의 공공성과 공동성의 실천문제, 친환경의 문제, 지형과 산세, 세대당 평면구성 등등—또한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었음은 물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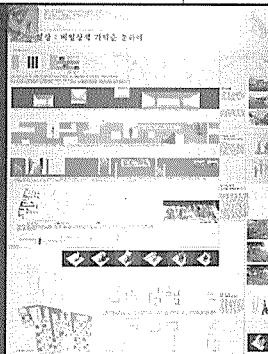
애초 본 공모전의 주제로서 일상성이 발제된 배경으로는, 건축에 있어서 거대담론적 이념의 도입이라든가 도식적인 개념의 설정과정들 혹은 개념 전개의 지적유희화 등으로부터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의 소박한 문제로 관심의 축을 옮기고 싶어서였다. 일상적 삶에서 접하게 되는 사소함, 평범함, 단순함, 친숙함 등을 보다 깊은 성찰의 시선으로 파고들어 그 속에 감추어진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 주목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적지 않은 경우, 일상성이란 주제를 다룸에 있어 그 단어 자체의 개념정의에 너무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개념설정에만 임하는 경향이 여러 안에서 나타난다. 또한 일상 대 비일상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싶다. 실인즉 일상 또는 비일상이란 개념 또한 어떤 관점이나 시간 혹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변통될 수 있는 지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지의적이고 다소 작위적인 개념설정 하에서 안들이 발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이럴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그 안이 고려해야 할 여러 덕목들이 부분적으로 누락되거나 희생되기 쉬워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감각을 상실한 안으로 전락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건축은 자기가 놓이는 리얼리티란 문맥에서 유리된 채 단지 지적게임의 결과물로서만 남게 될 뿐이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동시대의 여러 작가들이 동등한 기간동안 나름대로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공모전에서 심사를 맡게 된다는 것은 분명 신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응모자들의 노력과 생각들을 그 짧은 시간동안 판독하면서 바람직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간의 차이점을 공정하게 구분해 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하여 동료 심사위원이었던 서혜민 선생과 나는 그 한계점을 가급적 극복하려는 마음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간에 건축적으로 서 있는 지점이 달랐던 점이 이번 심사과정에서 그렇게도 고맙았다. 한편 입상권에 들지 못한 참가자가 여러분과 일부 심사를 받지 못한 응모작가들에게는 프랭크 게리(F. O. Gehry)가 한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Being accepted isn't everything"

4.5 당선/김광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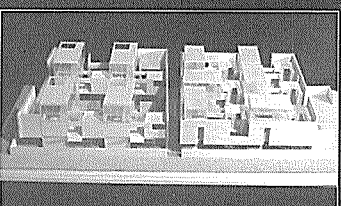


6

6.7.8 당선/김세훈



7



8